

화학산업 전력 과소비 지나치다!

2003년 207억kWh으로 14.5% 증가 ... 정유 · 플라스틱 105억kWh

2003년 화학산업에 투입된 전력이 312억kWh를 넘어섰다. 특히, 석유정제업종의 소비 전력이 전년대비 무려 2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3년 국내 전력 소비량은 2936억kWh로 전년대비 5.4% 증가해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력 수요 증가율은 4.4%로 낮았고 여름철 냉방용 전력 소비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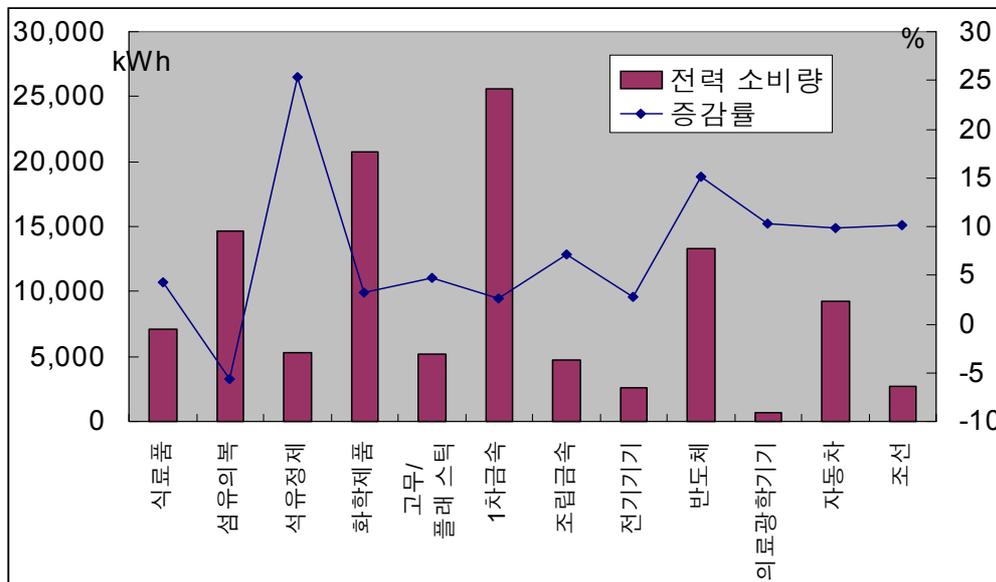
계약전력 역시 대부분의 용도에서 3년 연속 증가율이 감소했으며, 특히 산업용은 평균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석유정제의 2003년 전력 소비량은 53억5300만kWh, 화학제품은 207억600만kWh, 고무·플라스틱은 51억6400만kWh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화학산업 3개 부문의 전력 소비량은 312억2300만kWh로 2002년 292억6700만kWh보다 6.7% 증가했다.

석유정제 부문의 전력 소비량은 전년대비 25.3% 증가해 반도체, 의료광학기기, 조선업종의 소비 증가율을 2배 가량 앞질렀다.

전력 소비실적(2003)



2003년 12월 화학산업이 소비한 전력 사용량도 2002년 12월보다 7.1% 증가한 27억3500만kWh로 집계됐다.

화학제품 생산에 투입된 전력이 17억9900만kWh로 전체 산업의 14.2%를 차지했으나 소비증가율은 5.7%로 부진한 편이었으며, 한달 동안의 소비 증가율로는 석유정제업종이 14.7%로 가장 높았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09>